

우리 산업의 근간인 섬유공업을 세계적인 강국으로까지 이끄는 데 고급 인력과 기술력을 도모하는 등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섬유공학회(회장 朴信雄)의 효시는 1945년 광복 이전부터 있던 '조선기술연맹섬유산업회(회장 유종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업기술단체로도 유일의 학술단체임과 동시에 섬유관련분야의 학술적 모임이면서 현재의 한국섬유공학회의 맥이라고 하겠다.

45년 출범...64년 법인등록

〈연혁〉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광복 이후 섬유분야의 원로 인사들이 방직기술자간의 상호 친목과 방직기술 향상 및 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이 1945년 10월에 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21 삼화빌딩 4층(대한메리야스공업협회내)에 두고 창립된 「대한방직기술협회(회장 안호준(安鎬俊))」이다. 그 당시 우리의 섬유산업이란 가내공업적인 견사공업과 소기업적인 면방직공업에 국한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 협회의 첫번째 사업으로는 대한섬유

공업연구회를 조직하고 이 기구를 통해서 한국의 섬유공업 기술발전 및 운전기술자 훈련 등에 그 뜻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섬유관련 서적의 발간사업으로는 당시 경성방직주식회사 영등포공장장이었던 김병운(金丙運)씨에 의해 「면방적(綿紡績)」이 섬유공업총서 제1권(을지문화사, 국판 301면 인쇄, 1949년 2월 1일 발행)으로 발간되었으며 또한 같은 경성방직주식회사 영등포공장의 차장으로 재직중이던 강창섭(姜昌燮)씨에 의하여 「역직기(力織機)」를 집필토록 하여 섬유공업총서 제2권으로 섬유공업연구회를 통하여 발간되었다. 섬유공업총서 제3권으로 당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김문상(金汶尙)교수가 「편조공학(編組工學)」을 집필케 되었으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발간하지 못하고 말았다.

6.25동란으로 부산 피난지에서 재회합하여 임시총회(장소 : 서울공대 피난간 교사, 부산 동대신동)를 개최하였다. 대한방직기술협회 임시사무소를 부산시 서대신동 3가 161번지 서울대 공



朴 信 雄

(한국섬유공학회 회장)

50년 전통 ... 정회원만 3천여명

한국섬유공학회

광복 이전에 설립된 조선기술연맹섬유산업회를 모태로 1964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섬유공학회는 정회원 3천여명으로 해마다 학술발표회와 기술세미나를 여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섬유공학회 회원들은 분야별로 연구활동을 계속하면서 고급기술인력 확보와 산·학·연 협력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 내로 정하였다.

1954년 2월 환도 이후 몇차례의 총회를 거쳐 1960년 11월 정기총회에서 대한방직기술협회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대한섬유공학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1961년 4월 문교부에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법인화는 되지 않았다. 1962년 12월 다시 학회 설립문제가 대두되고 학계와 업계를 총망라하는 뜻에서 1963년 1월31일 국립공업연구소 강당에서 홍정모(洪貞模) 외 46명의 발기로 대한섬유학회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가칭)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를 창립키로 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회장 홍정모)가 창립되고 이어 문교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의 설립허가를 얻으면서 1964년 5월4일 회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하고 동년 6월 10일 계간 「섬유」 창간호를 발행케 되면서 논문이 실리는 학회지가 처음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섬유공학회의 이때를 창간일로 보고 있다.

1964년 9월30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문교부장관)를 얻어 법인등기를 필하므로 당시 법인으로 등록된 선도적인 학술단체가 되었다.

1966년 4월7일 전남지부를 결성하고 초대 지부장에 전남대 김재완(金載完)교수가 부임, 동년 7월7일에는 충남지부가 결성되고 초대지부장에 충남대 최삼식(崔三植)교수가 선임되었다. 이어서 1966년 11월23일 부산·경남지부 결성, 초대 지부장으로 장병호(張炳浩)교수가 선임되었으며 1967년 6월 3일자로 학회명칭을 한국섬유공학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듬해인 1968년 3월1일 학회지 「섬유」를 「섬유공학회지」로 개칭, 발행하였다.

동년 7월5일에는 경북지부를 결성하고 초대 지부장에 정원규(鄭元圭)영남대학교수를, 동년 10월12일에는 전북지부를 결성, 초대 지부장에 전북대 이달우(李達雨)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1973년 2월6일 학회지명을 「한국섬유공학회지」로 개칭, 발행키로 했다. 본 학회지는 당초 연 1회, 2회, 계간, 격월간을 거쳐 현재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1974년 4월 학회사업으로 섬유사전을 발간키로 하고 이에 따른 간행위원회를 조직, 각 분야별 위원을 위촉하여 이 방대한 작업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8년에 걸쳐 완성(2만1천6백38단어 수록, 1천1백10면)을 보게 되었다. 1989년에 재판을 발간하고 첨단 신소재 및 새로운 기술에 관한 용어들을 취합, 수록한 보완편(補遺編)을 1991년에 발간(4천단어 수록, 3백98면)하기에 이르렀다. 이 섬유사전 발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온 섬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섬유계의 좋은 길잡이가 될 뿐더러 섬유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믿는다.

1978년 5월17일 학회사무실을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과학기술회관으로 이주하여 독립된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발족하여 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학회사무실로 입주할 목적으로 건립기금을 염출(20평 해당분)하여 마련한 것이다. 당초(광복 전후) 조선기술연맹섬유산업회 시절에는 종로구 동숭동에 자리한 경성공업전문학교(서울공대 전신)에 사무실을 두었다가 중구 소공동으로 이

전, 6.25동란시에는 부산으로 피난, 수복후에는 소공동의 북창빌딩의 임대사무실, 국립공업연구소 겸직과, 공동 서울공대 섬유공학과 등에서 학회사무를 보게 되었다.

학회지 발간(월간 현재 32권 6호, 통권 171권 발행), 국내외의 학술활동과 학술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50년의 긴 역사를 회원과 더불어 걸어왔다.

정회원 3천여명, 단체회원 33개

〈회원과 조직〉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되어있다. 준회원은 대학 학부학생, 단체회원은 도서관 및 연구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및 기관, 특별회원은 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단체, 기업체, 명예회원은 섬유공업에 관한 학문과 기술로 공적이 많은 자 또는 학회산업에 다대한 공헌을 한 자로 요약할 수 있다.

1972년 평의위원회에서 종신회원제를 채택하여 회비를 일시에 납입한(당해년도 회비의 15년분) 정회원에게는 회비납입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학회의 정회원은 약 3천여명이나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활동을 하는 회원은 1천4백여명(종신회원 3백63명 포함)에 이르고 있다. 창립 당시는 2백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으나 단체회원 33개 기관, 특별회원 66개 기관으로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조직은 정관에 규정된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 밑에 평의위원회(1백명, 심의기관), 이사회(회무의 집행기관)로 구성되어 5개 지부와 각 위원회에는 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도서관행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기금운영위원

회, 조직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로는 공정분과위원회, 섬유고분자분과위원회, 염색가공분과위원회가 있으며 환경분과위원회, 봉제분과위원회 결성을 준비중에 있다.

학회사무국에서는 서무, 경리, 편집, 학술 및 기타 모든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기관으로 이사회 의안중 필요한 부분을 사전 협의한다. 임원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9인, 감사 2인으로 되어 있으며 임원의 선출은 정회원이 직선으로 평의원 1백명을 투표하여 50명을 선출하고 이 선출된 평의원 50명이 간선평의원을 선출하여 신평의회를 구성하고 신평의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학술발표·회지발간 등 활발

〈주요사업〉 학회사업으로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연구발표회를 위시하여 강연회, 강습회 및 섬유관련 용역사업과 학회지 발간 및 도서발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학회에서는 학계, 연구소에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1968년부터 연 2회, 춘계와 추계로 나뉘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산업계에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하여는 1973년부터 연 2회 하계와 추계에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체와 연구소에 근무하는 회원의 재교육의 차원에서 1983년부터 시작한 산학협동강좌를 13회째 개최하고 있다.

조사 연구사업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섬유공학 교육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으며 발간사업으로 섬유

사전 발간 외에 인조(人造)사전을 발간, 대학교재로 쓰이고 있다. 공업진흥청과의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공장설비 및 기술기준서」작성 및 한국공업규격 제정도 매년 수행하고 있다. 그간 국제행사로는 한·일 공동연구발표회(1983년 10월 서울), 한·중(대만) 공동연구발표회(1984년 2월 대중), 국제학술발표회(1989년 2월 서울)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2월에는 (2월 15~17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제 세계의 섬유생산 기지는 서서히 동아시아에 집중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본 학회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1989년에 아시아섬유연합회(Federation of Asian Professional Textile Association)를 창설(서울)하고 제1차 Asian Textile Conference를 인도 뉴델리에서, 제2차 회의(1993년 10월)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ATC 의장국(의장 마석일교수)으로서 제3차 아시아섬유회의를(1995년 9월 19~21일) 홍콩에서 범아시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기로 추진중에 있다.

회원의 연구장려 및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한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연 1회 '한국섬유공학회상'을 시상하고 있다. 그중에는 학회발전에 공헌을 한 자에게 공로상을, 섬유공학에 관한 학술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학술상을, 한국섬유공업에 관한 기술발전에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기술상을, 그리고 섬유과학과 기술에 관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신진연구자를 위하여 신진논문상을 시상하는 등 회원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앞으로의 전망〉 8.15광복 이후 6.25동란을 거치면서 우리의 섬유산업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가지 여건도 있었으나 사명감에 충실한 섬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종전 저가품의 다량생산, 다량수출의 시기는 지나가고 우리 섬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신소재개발 등 새로운 기술확보 및 체계의 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는 고급 기술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물량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물량이 상당하며 고용효과면에서나 외화가득률로 보나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산·학·연 협력체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섬유공학회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

우선 관련분야별로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하며 산업계와 학계의 정보교환 채널구축을 위하여 산학협동사업을 지금보다 더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활동 참여, 국제회의 유치, 해외 저명과학자 유치활용, 전시회 개최 등 산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보교환매체로서의 학회지도 논문지를 분리하고 영문지 발간도 연 2회로 구상하고 있다. 한국섬유공학회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학협동의 기틀을 다지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⑤7